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바지” 입은 이사장과 2030세대 직원들 청렴문화 확산 위해 머리 맞댔다

- 청렴 서포터즈 간담회를 열고 관리자 청렴 리더십 강화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논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5월 27일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서 2030세대 직원 중심의 청렴 서포터즈와 함께 ‘2026년 청렴 서포터즈 청바지 (청렴은 바로 지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렴을 단순한 제도나 규정이 아닌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관리자의 청렴 리더십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 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서포터즈 단장인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은 청바지를 착용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의 드레스코드인 ‘청바지’는 ‘청렴은 바로 지금’이라는 메시지를 상징하며 청렴을 일상에서 지금 바로 실천하자는 청렴 서포터즈의 의지를 담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공단의 청렴문화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감사실(청렴감사팀)	책임자	부 장	강지원 (031-728-7082)
		담당자	과 장	김내영 (031-728-7254)

